



교통/강진으로 오시는길



- 서울⇄광주(56분, 1일 5회) / 서울⇄목포(60분, 1일 1회)
아시아나(1588-8000) / 대한항공(1588-2001)
- 서울⇄목포(5시간, 1일 10회운행) / 서울⇄나주(4시간 30분, 1일 10회운행)
- 서울⇄목포(3시간 10분, 1일 8회운행) / 서울⇄나주(3시간 1일 5회운행)
- 서울⇄강진(5시간, 1일 6회) / 부산⇄강진(4시간 40분, 1일 22회)
문의 : 강진공용정류소(061-432-9777) / 광주종합버스터미널(062-360-8114)
- 광주⇄강진(1시간20분, 수시운행) / 광주종합버스터미널(062-360-8114)
- 서울⇄강진(5시간) / 광주⇄강진(1시간20분), 서울, 인천, 충청권 :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 대전, 호남권 : 호남고속도로 이용

- 강진종합관광안내 강진군 관광개발팀 061-430-3224
- 한국관광공사 02-729-9600
- 전라남도관광정보센터 061-286-4050~2
-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734
- 영랑기념사업회 061-433-3779

강진군 홈페이지 : www.gangjin.go.kr

강진관광명소



전라병영성(전라도 육군의 총지휘부)
전라병영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의 총지휘부였던 곳으로 마천목 장군이 공숙에 계시를 받아서 논(평)자국을 따라 축조했다는 전설이 있어 실성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길이는 1600m인데 동학혁명 때 훼손되어 폐영되었으며, 현재 복원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고려청자 도요지(고려청자역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
고려시대 500여년 동안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전국의 400여기 가마터 중 200여기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청자의 산실입니다. 3만여 점의 청자유물과 청자제작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청자박물관이 있고 한층더는 국보와 보물급 청자의 86%를 생산한 청자의 발생지로서 고려청자의 신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랑미항(하늘이 그려놓은 미항)
국내최초 관평미항으로 선정되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마랑항은 바다를 누를 줄기라는 강타공들의 천국입니다. 청정해역으로 물이 맑고 빨이 깊어 고기맛이 부드럽고 찰진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랑항 앞바다에 위치한 까막섬 상복수림은 천연기념물로 한쪽의 수목화를 연상케 합니다.



강진다원(월출산의 정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강진다원은 온도순환을 위해 설치된 펜션이 아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진귀한 가람과 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월출산과 온통 녹색인 차밭을 배경으로 가족과 함께 강진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무위사(500년을 지켜온 불교미술의 맥)
소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무위사는 국보 제138호인 극락보존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2008년 4월에 새로 개장한 무위사 내 성보박물관에는 천연도료를 사용한 보물급 벽화장과 각종 유물을 함께 전시하고 있어 500년 전 불교미술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백련사(붉은 동백림의 운치)
고려불교의 혁신을 주장했던 백련결사운동의 중심지였던 백련사는 8대사, 8국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독특한 가람배치와 건축양식을 보이는 백련사 주변에는 구강포 앞바다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자생하고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산초당(실학사상의 산실)
민족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18세기 대표적인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강진유배 생활 중 10년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묵안상자를 비롯한 600여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던 정약용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선생의 여러 유물을 특별전시하는 다산유물전시관과 주변에 차나무와 대나무 숲이 자리하여 한적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의재
다산 정약용 선생 유배 당시 7기했던 주막·사모재는 다산 선생께서 1801년 천주교 탄압사건인 신유교역 때 사환과 권련도어 경성북도 정지현으로 유배되었다가 할사당 백사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어 11월 22일경(음력) 강진에 도착 동문밖 주막집 노파의 허락으로 4년간 7기 했던 곳을 사모재라 합니다.
(해설: 익재(익재) 관음상가, 안숙헌 공묘, 고산헌 안어, 충무헌 공서 등 4가지로 전해져 내려오며 해안: 익재(익재) 관음상가 0.1km를 잊고 해안: 후학 7목에 유서깊은 곳으로 지난 10월 2일 개관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진의 맛!



강진한정식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올린 어패류와 친 환경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기름진 쌀로 지은 강진한정식은 향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최고의 웰빙식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합과 토라켓
강진대합은 숙취해소에 탁월하여 강진 원남대합자랑이란 옛말이 있으며, 그 맛이 뛰어나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졌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강진 옹천 토라켓 또한 임금님 진상품이었습니다.

제8회 다산제 소개



개혁신상이자 탁월한 과학자이기도 한 다산은 한강에 배를 연결해 만든 배다리를 설치하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소개하였으며 또한 훗날 가장 완벽한 구조로 평가받는 수원 화성축조를 설계하였고 이때 거중기를 개발 하였습니다. 또한, 18년간 장기간에 걸친 강진유배생활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경제(經世)의 학문인 실학을 연구하여(목민심서), 〈흠휼산서〉, 〈경제유표〉등 6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귀중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에 다산선생의 강진유배 207주년을 맞아 다산선생을 추모하고 그분의 깊고 숭고한 사상을 기리고자 다산제를 개최합니다.

- 기간 2008.5.3(토)~5.5(월)/3일간
- 장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정다산유적지 일원
- 주최 강진군
- 주관 다산제추진위원회



영랑생가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기념

제8회

영랑문화축제

물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이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요함길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기간 2008.4.25(금)~27(일)/3일간

장소 전남 강진군·읍 영랑생가·도서관 일원

주최 강진군

주관 영랑기념사업회·시·문화재단





영랑문학제 소개

강진이 낳은 20세기
한국의 대표적 서정 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에 대한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높은 민족사상과 심오한
시심을 널리 알리고자 모란꽃이
만개한 봄을 맞이하여
문학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을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소박한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해낸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내마음을 아실이’
‘쭈쭈’ 등 87편의 주옥같은 시를
창작하여 애송해 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운이 소생하는 강진의 아름다운
봄 기운과 영랑의 시혼을
만끽할 수 있는 영랑문학제에 오셔서
여러분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영랑 김윤식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봄 길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시(詩)의 가슴을 싹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머랄드 얹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제6회 영랑시 문학상



시인 신달자

1930년대 시문학을 창간한 대한민국 서정시의 대가
영랑 김윤식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랑시
문학상을 제정한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랑 시세계를 계승하고, 한국 시문학의 발전
에 크게 이바지한 시인을 대상으로 영랑 시문학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인 신달자 선생이 영
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시상일시 2008.4.25(금) 저녁 7시
- 장 소 강진읍 영랑생가 특설무대
- 수 상 자 신달자

죽오프로그룹

일	시	내	용	장	소
425(금)	10:00~15:00	제10회 영랑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		영랑생가 일원	
	13:30~15:30	영랑시문학강연		강진문도서관(시창각실)	
	16:00~17:30	도종환 시인 특별강연		문화회관 대강당	
	17:30~18:30	풍물패 갈놀이		강진읍 시장지	
	18:20~18:40	영랑시집 시인회		영랑생가 상설무대	
425(금)		개막식 - 영랑생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기념식 - 제6회 영랑시문학상 시상 ※본상: 신달자/우수상: 임동환 - 영랑시문학의밤 ※성악가 강동규, 김혜경 홍재은, 서은진 가 수 안치환, 김솔비 국 악 이영주, 이은하 시낭송 심양환(탈린트)		영랑생가 특설무대	
	19:00~21:00				
426(토)	09:30~12:30	제4회 전국 영랑백일장 대회		영랑생가 일원	
	10:00~18:00	도서문화한마당 거리그림 전시회 책 제목 맞추기 철보공예 만들기 천연바누 만들기 동아리 작품전시 책 나눔 행사, 동화구연대회(9:30~13:00) 가족유지컬 파티팬공연 (10:30분 14:00, 16:00 3회)		강진문도서관	
	14:00~16:00	문학 특강(신달자 시인) 및 강담회		강진문도서관(시창각실)	
	18:00~21:00	모란예술제		영랑생가 특설무대	
427(일)	10:00~17:00	꿈나무 미술체험		영랑생가 일원	
	14:00~16:00	영랑시 낭송대회		영랑생가 특설무대	
	16:00~17:00	폐막식(폐막공연)		"	

※부대행사: 영랑시화전, 강진 시인전, 청자전시 판매, 이항해(분재) 전시, 전통음식점운영,
영랑기념품 판매, 친환경 특산물 판매, 전통차 시음회, 이너비디오토크쇼

영랑시 문학상

역대 수상자

- 2003년 제1회 송수권 시인
- 2004년 제2회 김남주 시인
- 2005년 제3회 이준관 시인
- 2006년 제4회 김남조 시인
- 2007년 제5회 고 은 시인

제4회 전국 영랑백일장 대회

■ 개요

- 일 시 : 2008. 4. 26(토) 09:30 ~ 12:30
- 장 소 : 영랑생가 일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소재)
※ 접수인원 및 우천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강진군홈페이지 게시)

- 주최/주관 : 강진군/영랑기념사업회, 시와 시학사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부, 대학·일반부
- 단, 초·중·고등부는 학교장 추천자

- 신청기간 : 2008. 4. 18(금) 까지

■ 내용

- 부 문 : 운문과 산문(주제는 당일 발표)
- 준 비 물 : 필기도구(원고지는 주관측에서 당일 제공)
- 심사위원 : 당일발표

■ 입상자 발표

- 입상자 발표 : 2008. 5. 2(금) 10:00
-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gangjin.go.kr/>) 및 개별통지

■ 시상

- 시상방법 : 시상식은 학교장에게 시상의뢰
(초·중·고등부 및 개별통지)

- 시상내용:

등수	부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시상인원	총비용(천원)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부상	1000000				1명	1,000
최우수상	군수상 및 부상	200000	200000	300000	500000	4명	1,200
우수상	교육장상 및 부상	100000	100000	200000	200000	4명	1,200
려 상	특선상 및 부상	50000	50000	50000	50000	4명	2,000

제4회영랑문학제

고 시

